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박희관* · 이종화**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Park Hee-gwan, M.D., Lee Jong-hwa, O.M.D.

Department of Psychiatry, Hando Hospital, Uijongbu*,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eok-Jeong Army Hospital, Ya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In addition, this information could also be valuable in clinical practices. The QSCC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and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was administered to 319 volunteer male soldiers (21.5 ± 1.4 yr) in the arm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oyangin groups tended to be extroverted, sensing, perceiving types.
- 2) Soeumin groups tended to be introverted, sensing, thinking, perceiving types.
- 3) Taeumin groups tended to be extroverted, sensing, thinking types.
- 4) but, there were no Taeyangin groups according to QSCC II.

Th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Psychological Type.

* 의정부 한도병원 정신과

** 국군덕정병원 한방과

I. 서론

몇 가지 범주의 유형으로 인간을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다혈, 우울, 담즙, 점액 등으로 구분한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설, 쇠약, 비만, 투사, 이상 발육형 등 신체형에 따른 크레치머의 설, 성격구조의 삼요인 모델에 따른 아이젠크의 이론, 그리고 심리학적 유형론을 주장한 융의 이론 등이 있다. 특히 융의 이론에 근거한 설문지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된 성격 검사도구 중에서 가장 오랜 연구적 배경을 갖고 있고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 가운데 하나이다.¹⁾

융의 심리학적 유형은 어려서부터 이미 본능적으로 구별되는 생래적 경향으로서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¹⁾ 따라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오해, 논쟁, 편견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람이나 세상을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심리학적 유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으로 내향적 태도, 외향적 태도를 말하며, 둘째는 정신의 각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 이를 기능유형이라 한다. 융은 정신의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 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¹⁾

한의학에서는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에 따라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구분하여 병증과 방제의 운용, 나아가 순기, 조기라는 차원에서 성정의 균형을 잡는 치료적 접근을 하였다. 최근 사상의학이 성장현상 중심의 체질의학이며 심신 균형적 치료의학이라는 점²⁾³⁾에서 사상체질변증 객관화의 한 분야로써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해 객관적 체질판별법을 개발하려는 작업이 활발하다.⁴⁾⁵⁾⁶⁾⁷⁾⁸⁾⁹⁾¹⁰⁾¹¹⁾¹²⁾

저자들은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소양인은 아마도 외향적 감각형이고 소음인은 내향적 감각형이며 태양인은 외향적 직관형이고 태음인은 내향적 사고형일 것이라고 가정해 보았다. 물론 네 가지의 사상체질별로 융의 8가지 심리학적 유형이나 MBTI에 따른 16가지 심리학적 유형을 일일이 연관지우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으나, 이를 비교 연결하는 시도는 사상체질 분류검사지(QSCCⅡ: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Ⅱ)의 객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한방의 가교와 상호 이해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상의학에 있어서 임상적 기초가 되는 사상체질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상체질 분류검사지(QSCCⅡ)와 MBTI를 각각 실시하여 상호간의 연관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 방법

연구목적에 구두로 동의한 군부대의 장병 319명(21.5±1.4세)을 대상으로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김선호 등(1995)이 개발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⁹⁾¹¹⁾¹²⁾와 김정택과 심혜숙(1990)의 MBTI¹³⁾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DOS용 PC-SAS(6.04판)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BTI의 하위척도들의 연속점수와 사상체질별간의 연관성 정도는 ANOVA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Duncan의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의의는 $p < 0.05$ 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 1) 내향(I: introversion)-외향(E: extroversion) 지표에서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에 의하면 태음인과 소양인은 동질 집단으로 묶여 외향적으로 나타났고, 소음인은 뚜렷한 내향성을 보였다 (Table 2).
- 2) 감각(S: sensing)-직관(N: intuition) 지표에서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에 의하면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모두 감각적 기능을 선호하는 동질 집단으로 묶여졌다.
- 3) 사고(T: thinking)-감정(F: feeling) 지표에서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 사고적 경향을 보였지만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에 의하면 소양인과 소음인이 동질 집단으로 묶이고, 소음인

과 태음인이 동질 집단으로 묶였으며, 소양인은 태음인에 비해 감정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N = 319)

Age		21.5 ± 1.4
Education	High school	129(40.4%)
	College	182(57.2%)
	Over college	8(2.4%)
Religion	No religion	103(32.2%)
	Protestant	122(38.3%)
	Catholic	28(8.7%)
	Buddhist	66(20.8%)

Table 2. Associations between MBTI subscales and QSCC II types

	DF	F value	Mean	Duncan's Grouping	비교 (평균)
내-외향성	2	32.27	태음 : 105.6	A	외향 > 100 내향 < 100
			소양 : 103.8	A	
			소음 : 84.0	B	
감각 - 직관	2	0.83	소음 : 86.4	A	직관 > 100 감각 < 100
			소양 : 85.1	A	
			태음 : 83.0	A	
사고 - 감정	2	4.46	소양 : 96.5	A	감정 > 100 사고 < 100
			소음 : 91.5	A B	
			태음 : 88.9	B	
판단 - 인식	2	2.76	소양 : 109.7	A	인식 > 100 판단 < 100
			소음 : 103.7	A B	
			태음 : 101.5	B	

Table 3. Frequency of MBTI's 16 types according to QSCC II

	소양 (N = 113)	소음 (N = 98)	태음 (N = 108)
1. ISTJ	9 (8.0%)	20 (20.4%)	19 (17.6%)
2. ISTP	17 (15.0%)	16 (16.3%)	9 (8.3%)
3. ESTP	17 (15.0%)	6 (6.1%)	18 (16.7%)
4. ESTJ	13 (11.5%)	10 (10.2%)	16 (14.8%)
5. ISFJ	5 (4.4%)	11 (11.2%)	2 (1.9%)
6. ISFP	7 (6.2%)	10 (10.2%)	7 (6.5%)
7. ESFP	14 (12.4%)	4 (4.1%)	7 (6.5%)
8. ESFJ	8 (7.1%)	0 (0.0%)	7 (6.5%)
9. INFJ	1 (0.9%)	2 (2.0%)	0 (0.0%)
10. INFP	3 (2.7%)	7 (7.1%)	3 (2.8%)
11. ENFP	6 (5.3%)	0 (0.0%)	8 (7.4%)
12. ENFJ	1 (0.9%)	1 (1.0%)	3 (2.8%)
13. INTJ	0 (0.0%)	4 (4.1%)	1 (0.9%)
14. INTP	9 (8.0%)	5 (5.1%)	4 (3.7%)
15. ENTP	2 (1.8%)	1 (1.0%)	3 (2.8%)
16. ENTJ	1 (0.9%)	1 (1.0%)	1 (0.9%)

Table 4. 용의 8개의 유형에 따른 빈도

	소양 (%)	소음 (%)	태음 (%)
내향감각 (IS)	14 (12.4)	31 (31.6)	21 (19.4)
외향감각 (ES)	31 (27.4)	10 (10.2)	25 (23.1)
내향사고 (IT)	26 (23.0)	21 (21.4)	13 (12.0)
외향사고 (ET)	14 (12.4)	11 (11.2)	17 (15.7)
내향감정 (IF)	10 (8.8)	17 (17.3)	10 (9.3)
외향감정 (EF)	9 (8.0)	1 (1.0)	10 (9.3)
내향직관 (IN)	1 (0.9)	6 (6.1)	1 (0.9)
외향직관 (EN)	8 (7.1)	1 (1.0)	11 (10.2)

4) 판단(J: judging)-인식(P: perceiving) 지표에서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모두 인식적 경향을 보였지만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에 의하면 소양인과 소음인이 동질 집단으로 묶이고, 소음인과 태음인이 동질 집단으로 묶였으며, 태음인

은 소양인에 비해 판단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인식형으로 상대적으로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감각형이며 사고와 인식형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태음인은 의외로 외향형이었고, 감각형, 사고형이며 인식형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4의 음의 8가지 심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빈도상 15%이상 나타난 것을 순위별로 보면 소양인은 외향성 감각형(ES), 내향성 사고형(IT)이고 소음인은 내향성 감각형(IS), 내향성 사고형(IT), 내향성 감정형(IF)이며 태음인은 외향성 감각형(ES), 내향성 감각형(IS), 외향성 사고형(ET)이었다.

IV. 고 찰

사상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心身을 일체로 보는 心身의학이라는 점이다. 체질마다 체형이 있는 것처럼 체질마다 마음의 형이 있다. 이 차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사상의학에서는 性質才幹(재능, 소질, 장점 따위), 恒心(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心慾(심성을 다스리지 못해 너무 과도한 때 드러나는 욕심) 등으로 구분한다. 이 심성의 차이는 적성, 대인관계,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차이를 가져온다.²¹⁾

MBTI는 음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실용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음의 유형론은 인간 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

MBTI는 음의 심리학적 유형론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태도, 즉 외향성(E)과 내향성(I) 그리고 네 가지의 정신기능 유형, 즉 인식 측면에서의 감각(S)과

직관(N) 그리고 판단 측면에서의 사고(T)와 감정(F)을 토대로 인간의 심리유형을 설명한다. 여기서 언급된 음의 이론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한의학의 음양이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외향성(E), 감각(S), 감정(F)은 양에 배속되고 내향성(I), 직관(N), 사고(T)는 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기술한 것 가운데 판단(J)은 양에, 인식(P)은 음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사상의학에서 구분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도 체질에 따라 성격에 해당하는 性質才幹, 恒心, 心慾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MBTI에서의 성격 유형과 관련성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음은 일반적인 태도를 외향성(E)과 내향성(I)으로 구분하였다. 외향적 태도(E)를 가진 사람은 관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다 쏟는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에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한다. 즉 그들은 부단히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고 행동 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많다. 내향적 태도(I)를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내향성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내부 세계의 개념과 관념이다. 즉 마음속의 개념과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인 외부사건보다는 지속적인 개념을 더 신뢰하며,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

음은 모든 인식 활동을 감각과 직관으로 나눈다. 감각(S)이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을 말한다. 감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감각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적

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직관(N)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음은 직관을 무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인식으로 특징짓고 있다. 직관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패턴, 즉 육감이나 예감 또는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음은 또한 모든 판단 활동을 사고와 감정으로 나눈다. 사고(T)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다. 사고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감정(F)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케 하는 기능이다. 가치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 기능으로 판단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긴다.

Myers와 Briggs의 MBTI에서 인식(P)은 사물과 사람과 사건 및 사상을 깨닫는 다양한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감각 또는 영감의 추구, 주목해야 할 자극의 선택도 인식에 해당한다. 판단(J)은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사 결정, 평가, 선택, 자극을 인식한 후 취할 반응의 선택도 판단에 해당된다. 외부 세계로의 지향시에 나타나는 판단과 인식 가운데 인식적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긴다. 이러한 인식적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을 보면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높으며,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에 개방적이며 아무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 판단적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잘 내리려고 하고, 인식형 같이 주어지는 정보를 느긋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정보를 얻었다 싶으면 재빨리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 그리고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편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제시한 각 체질의性情 근거로 삼아 MBTI에서 사용하는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인식(P)-판단(J) 등의 지표와 연관시켜 보면 아래와 같다.

소양인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 不欲措,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 不欲內守”라고 하였다.¹⁵⁾¹⁶⁾ 뭐든지 일을 벌여놓기만 하지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 소양인은 양인답게 강인함도 있고 적극성도 있어서, 어떤 일을 착수하는 데 어려워하지 않는다. 시작이 반이라는 태도로 쉽게 일을 꾸민다(J). 행동거지가 활발하고 몸가짐이 날랜 것이 민첩하여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원시원하다(S). 밖에서 칭찬 받고 이름나는 것을 좋아하고, 안에서 충실히 일하는 것에는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E). 또 徧私之心이 있어서 사사로운 정에만 치우치는 마음이 생긴다.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 중요한 일과 사사로운 일,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등을 구분해서 절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F).²⁾

태음인은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 不欲外勝”라고 하였다.¹⁵⁾¹⁶⁾ 즉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려고만 하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세계는 잘 아는데 바깥 세계는 모르게 된다. 또 집안 일은 잘 아는데 바깥 세계는 모른다(I). 그 결과 자신의 외부 그리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바깥 세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겁심으로 표출된다(P). 怵心이 마음을 항상 속박하여 어떤 다른 변화도 싫어하게 되고, 현재의 자신, 현재의 상태에만 더욱 몰입하게 된다

(S). 또 태음인은 꾸준하고 침착하다.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 맡은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데 장점이 있다(T).²⁾

그리고 소음인에 대해서는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라고 하였다.¹⁵⁾¹⁶⁾ 집안으로 돌아와 있으려고만 하고 밖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곧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다(I). 여성적이고자 하고 남성적이고자 하지 않는다. 곧 적극성이 적고 추진력이 약하다. 그러나 생각이 치밀하고 침착하다. 잠시 감정에 휩싸이는 일은 있지만, 원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유형이어서 계속 감정적으로 치닫지는 않는다(T). 소음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리 작은 구석까지 살펴 계획을 하므로 그러한 재간이 나온다(S).²⁾

이상에서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의 四象人 性情과 MBTI에서의 지표를 관련지은 결과를 보면 소양인은 외향적 감각형이고 감정적이며 인식형의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음인은 내향적 사고형이고 감각적이며 인식형의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인은 내향적 감각형이고 사고적이며 인식형의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체질의 음양에 따라서 MBTI의 각 지표에 따른 음양배속과 상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추론과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소음인은 주로 내향성 감각형(IS), 내향성 사고형(IT), 내향성 감정형(IF) 등을 나타내어 강한 내향성을 나타내는 점, 태음인은 주로 외향성 감각형(ES), 내향성 감각형(IS), 외향성 사고형(ET)을 나타내어 감각형과 사고형을 나타내는 점, 소양인은 외향성 감각형(ES), 내향성 사고형(IT), 외향성 사고형(ET)을 나타내는 점, 등은 대체로 일반적 추론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소양인이 판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식형을 나타내는 점, 태음인이 강한 외향성을 나타내

는 점, 등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러한 추론과 연구 결과상의 차이는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MBTI에서 나타난 심리학적 유형들에서 각 기능들은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개의 지표를 四象人의性情과 관련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심리적이고 성격적인 MBTI와 다분히 체질론적인 QSCCⅡ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사상인일지라도 네 가지의 하위척도들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산처리되어 그 결과만을 비교하는 통계방법은 한계가 있다. 또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MBTI의 유형별 결과를 보면 외향성(E):내향성(I)은 36:64, 감각(S):직관(N)은 75:25, 사고(T):감정(F)은 68:32, 판단(J):인식(P)은 60:40의 비율을 나타낸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⁷⁾ 한편, 조용태 등(1994)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를 보면 태양척도는 외향성 직관형이고 인식형이며, 소양척도는 직관형과 인식형이며, 태음척도는 감각형이며, 소음척도는 내향성 판단형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소양인이 감각형이며, 소음인은 인식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달랐다. 이 부분에 대한 후후 연구에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늘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유형과 심리현상을 매개하는 원형의 관계이다. 음 학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원형이란 인간이면 누구의 정신에나 존재하는 인간정신의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핵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시공을 넘어 항상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며 그런 가능성을 지닌 틀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⁸⁾ Keirsey와 Bates는 Myers와 Briggs의 16가지 성격 유형을 선호하는 기능들에 따라 4가지의 기질로 묶어 디오니시우스(SP)적 기질(ISTP,

ESTP, ISFP, ESFP), 에피메테우스(SJ)적 기질(ISTJ, ESTJ, ISFJ, ESFJ), 프로메테우스(NT)적 기질(INTJ, INTP, ENTJ, ENTP), 아폴로(NF)적 기질(INFJ, ENFJ, INFP, ENFP)과 같이 제우스로부터 사람들이 좀 더 신들을 닮도록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신들을 은유적으로 대표하여 4원형을 제시하였다.¹⁹⁾ 신화에 의하면 아폴로는 인간에게 정열을 가져다주라는 명령을, 디오니시우스는 인간에게 기쁨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과학을 가져다주라는 명령을,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의무감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디오니시우스적 사람들은 자유로와야만 하고 충동적이다. 종종 친구들로부터 자극적이고 낙관적이며 쾌활하고 천하태평이며 장난기가 넘친다는 얘기를 듣는다. 에피메테우스적 사람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의 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늘 준비하는 자세다. 프로메테우스적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않는다. 현상을 이해하고 조정 통제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길 원한다. 단순히 놀지를 못하고 오락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지워 일 속에서 산다. 아폴로적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를 추구한다. 사고 파는 상업적인 직업에는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의 관심은 사물이 아닌 인간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를 좀 더 늘려 사상체질과 4 원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계획이다. 이들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사상체질별로 그 기질적 특성이 한층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선호체계의 뚜렷한 구분은 임상 실제에 있어서 치료적 접근을 달리할 수 있는 기법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Spiegel과 Spiegel은 디오니시우스적 유형은 최면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면치료적 암시에 잘 반응한다고 하였다.²⁰⁾ 따라서 이들 환자군은 침 치료시 상상적 몰입을 통한 암시와 함께 침 자극을 주는 Trance-Zhen²¹⁾²²⁾ 내지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적인 Anchorpuncture같은 기법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²³⁾ 1970년대에 Bandler와 Grinder에 의해 개발된 신경-언어 프로그래밍(neuro-linguistic programming)이란 내담자의 선호표상체계(representational systems)를 빈사(predicates)나 접근단서(accessing cues) 등을 통해 맞춰가면서(pacing) 치료적으로 이끌고(leading) 행동의 틀을 새롭게 짜나가는(modelling or reframing)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면서 정보처리에 관한 인지과학이다.²⁴⁾²⁵⁾²⁶⁾²⁷⁾ 즉,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감각 기관을 통해 입력되는 외부의 정보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여파되고 편집되는가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사상체질별로 선호하는 표상체계가 뚜렷히 구분된다면 임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각(four-tuple)에 기초한 기술(sensory-based descriptions)이 사상체질별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도 기대를 해본다. 이러한 시도는, 뇌의 기능이 간과된 전통적 한의학 체계에는 신경생리나 인지과학적 근대성(modernity)을, 유전자와 중추신경계 중심의 생물학적 서양 현대의학 체계에는 장부와 몸의 상호작용 원리를 반영하는 탈현대(post-modernity)적 관점을, 각각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QSCCⅡ로 분석한 사상인의 체질과 MBTI의 심리학적 유형과의 비교는 대체로 예상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좀 더 객관적인 체질분석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서

참고할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저자들은 임상에서 QSCCⅡ를 이용하여 약 2,000명의 체질 분류를 하였지만 QSCCⅡ가 태양인을 변별해내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향후 설문지의 보완 작업에서는 이점이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류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참고할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QSCCⅡ상 태양인을 변별할 수 없었다는 점이 향후 설문지의 보완 작업에서 다뤄져야 하겠다.

중심단어 : 사상체질, 심리학적 유형.

V. 결 론

본 연구는 양·한방의 가교와 상호 이해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상의학에 있어서 임상적 기초가 되는 사상체질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상체질분류검사Ⅱ(QSCCⅡ)와 MBTI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두 개의 설문지를 319명(21.5±1.4세)의 군부대 장병들에게 실시한 후 채점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인식형으로 상대적으로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감각형이며 사고와 인식형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3. 태음인은 의외로 외향형이었고, 감각형, 사고형이며 인식형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냈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의 사상인의性情에 근거한 추론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 소음인이 강한 내향성 감각형을 나타내는 점, 태음인이 주로 사고형과 감각형을 나타내는 점, 소양인이 강한 외향성 감각형을 나타내는 점 등은 대체로 일반적 추론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소양인이 예상과 달리 판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식형을 나타내는 점, 태음인이 강한 외향성을 나타내는 점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QSCCⅡ로 분석한 사상인의 체질과 MBTI에 따른 심리학적 유형과의 비교는 대체로 예상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좀 더 객관적인 사상체질

참 고 문 헌

1. 김정택·심혜숙·제석봉 :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2. 송일병 :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사상사, 1996
3. 송일병 : 이제마 철학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 성립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3(1) : 2, 1991
4. 성수경 : 사상의학 체질감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8
5. 오세정 : 동의수세보원에서 본 사상인 체질감별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6. 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변증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9 : 40-47, 1985
7. 김수범 :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구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8. 김선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 김선호·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5(1) : 61-80, 1993
10. 김달래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6(1) :

- 89-94, 1994
11. 김선호·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 187-246, 1995
 12. 이정찬·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Ⅱ)에 대한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 247-294, 1996
 13. 김정택·심혜숙 : 성격유형검사(MBTI).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1
 14. 조용태·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검사 (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6(1) : 21-39, 1994
 15.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서원, 1979
 16. 홍순용·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89
 17. 김정택·심혜숙 :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18. 박희관·이철·한오수 : 의대생들의 전문과목 선호와 융의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33(6) : 1370-1377, 1994
 19. 김정택·심혜숙·임승환 역: 나의 모습, 나의 얼굴(Keirse D. Bates M(1978): Please Understand Me: An Essay on Temperament Styles. Del Mar, CA, Prometheus Nemesis Books).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3
 20. 박희관·손정현·유제춘·이창화: 한국인의 성격특성과 최면반응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병리학 6(1) : 137-147, 1997
 21. 박희관·이승기: 이명의 최면침요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p165, 1997
 22. 박희관·이종화·이능기·박원봉: 사상체질과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9(2): 175-185, 1997
 23. 박희관: 문제행동의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적 치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p193, 1998
 24. 전경숙 역: 새 심리치료 개론: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서울, 하나의학사, 1996
 25. Lankton S: Practical Magic: A Translation of Basic Neuro-Linguistic Programming into Clinical Psychotherapy. Cupertino, CA, Meta Publications, 1980
 26. Grinder J, Bandler R: Reframing: Neuro-Linguistic Programm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Meaning. Moab, Utah, Real People Press, 1982
 27. Grinder J, Bandler R: Tranceformations: Neuro-Linguistic Programming and the Structure of Hypnosis. Moab, Utah, Real People Press, 1981